

- 주요 뉴스: 미국,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우려. 러시아는 강하게 반박
 -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, 인플레이션 억제에 위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
 - ECB 수석 이코노미스트, 유로존 인플레이션은 상당 기간 둔화되지 않을 가능성
 - 터키 중앙은행, 기준금리 동결.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지속 등을 반영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

주가 하락[-2.1%], 달러화 강세[+0.1%], 금리 하락[-8bp]
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우려 등으로 매도 증가
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 주식시장과 유사한 이유로 0.7% 하락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금리인상 전망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 등이 배경
유로화가치는 0.1% 하락, 엔화는 0.5% 절상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이 주요 원인
독일은 미국 국채시장과 유사한 이유로 5bp 하락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199.0원, +1.2원) 0.1% 상승, 한국 CDS 보합

		2/17일	2/16일	전일대비			2/17일	2/16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380.3	4,475.0	-2.12%	국채 금리 10y	미국	1.96%	2.04%	-8bp
	유럽	464.55	467.77	-0.69%		독일	0.23%	0.28%	-5bp
	중국	3,468.0	3,465.8	0.06%	CDS 5y	한국	27bp	27bp	0bp
	일본	27,233	27,460	-0.83%		중국	53bp	52bp	1bp
	한국	2,744.1	2,729.7	0.53%	위험 지표	EMBI+	-	413	-
환율	달러지수	95.83	95.70	0.13%		VIX	28.11	24.29	15.73%
	유로화	1.1361	1.1373	-0.11%		WTI유	91.76	93.66	-2.03%
	엔화	114.94	115.52	0.50%	원자재	구리	450.1	453.7	-0.79%
	위안화	6.3384	6.3372	-0.02%		금	1,898.4	1,869.8	1.53%
	원화	1,197.1	1,197.6	0.04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,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우려. 러시아는 강하게 반박

-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국경 부근의 병력을 이동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, 즉각적인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언. 오스틴 국방부 장관 역시 러시아가 국경 부근의 병력을 오히려 늘리고 있다고 지적
- 그러나 러시아 대통령궁의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침공 의도가 없으며, 훈련에 참여한 병력을 하루 만에 철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. 또한 돈바스 지역에서 발생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 성향 반군의 교전을 주시할 것이라고 침언
- 한편 EU 정상들은 비공식 회의를 열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제재에 대해 논의.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NATO 가입을 원하지만, 이를 위한 과정이 진전되지는 않고 있다고 언급
- 2/17일(현지시각) 배럴당 WTI 가격은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란 핵협상 타결 기대 등으로 전일 대비 2% 하락(배럴당 91.76달러). 그러나 Oanda는 이란 핵협상 재료가 없었다면 WTI 가격은 이미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을 것이라고 언급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,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

- 블라드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능의 상태에 진입할 수도 있다고 경고. 이에 금년 7/1일까지 1%p의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확인. 향후 시행될 연준의 조치들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부연

■ 미국 2월 2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, 예상치 상회. 향후에는 다시 감소할 가능성

- 해당 건수는 24.8만건으로 전주(22.5만건) 및 예상치(21.9만건)를 모두 상회. 하지만 씨티그룹의 Veronica Clark은 필요 인력 부족이 여전한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한다면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는 결국 다시 줄어든 것으로 예상
- 한편 1월 주택착공건수는 연환산 163.8만건으로 전월(170.8만건) 및 예상치(170만건) 하회. 혹한에 따른 착공 지연 등이 원인. 시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과 주요 원자재 비용 증가 등으로 주택수요가 점차 악화될 것으로 예상

■ ECB 수석 이코노미스트, 유로존 인플레이션은 상당 기간 둔화되지 않을 가능성

- 레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팬데믹 사태가 종료되어도 인플레이션 수준이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. 중국산 수입품 감소와 같은 구조적 요인 등이 물가 하락을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

■ IMF, ECB의 완화정책 유지를 지지. 향후 인플레이션 둔화를 전망

- 공급 차질 등의 영향으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내년까지 지속될 수도 있으나, 결국 하락하여 목표치(2%)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. 또한 완만하게 상승하는 임금 역시 인플레이션 둔화의 징후라고 설명

■ Fitch, 금년 120개국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은 인플레이션으로 2%p 하락 예상

- 팬데믹 사태 이후 전세계적으로 부채 규모가 증가했으나, 인플레이션은 부채비율의 하락에 일조. 하락 수준은 국가별로 상이하나 미국, 영국, 캐나다(각각 -5.0%p, -4.6%p, -4.1%p)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하락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

■ 모하메드 엘 에리언,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할 소지

- 캠브리지 대학의 엘 에리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발생하면 이들 국가가 수출하는 주요 원자재(원유 등) 가격이 상승하면서 고물가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관측. 또한 경기 불확실성 확대,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 등으로 경제성장 역시 둔화를 예상

■ 터키 중앙은행, 기준금리 동결.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지속 등을 반영

- 현행 7일물 역레포 금리를 14%에서 유지하기로 결정. 이번 결정은 정부의 저금리 유지 의지와 고물가 지속이라는 경제 현실 사이에서 타협이 이루어진 결과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2/17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1월 건설허가건수(만건): 190, '21년 12월(189), 예상치(176)
- 미국 2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지수: 16, 1월(23.2), 예상치(20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2/18 현지시각 기준)

- ECB 엘더슨 및 파네타 위원 이사 강연, 미국 1월 기존주택판매
- 유로존 2월 소비자신뢰, 영국 1월 소매매출, 일본 1월 소비자물가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대응, 재정지출 관리가 중요 - The New York Times

(Biden Keeps Blaming the Supply Chain for Inflation. That's Dishonest.)

-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의 물가 오름세가 공급망 문제로 초래되었다고 주장. 하지만 공급 부족은 과도한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수요 급증의 산물이며, 인플레이션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는 곤란. 소비수요가 공급을 크게 초과하며 물가 상승세가 강화
- 이에 정부는 경기회복 속에 재정지출 축소를 통한 총수요 관리가 필요. 특히 '더 나은 재건(Build Back Better)' 계획은 정부의 주장과 달리 재정수지 적자 확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, 이에 접근 방식의 전환이 요구
- 총수요 축소를 통해 물가안정 및 경기연착륙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사례 등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. 과거 클린턴 정부는 이를 위해 세금인상 등의 조치를 시행

■ ECB의 금리인상 여부, 향후 인플레이션 수준이 관건 - 블룸버그

(Economists wonder: Is the ECB about to make a policy error?)

-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은 향후 2년간 유로존 인플레이션 수준이 1.8% 내외를 기록하고 12월 ECB가 0.25%p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. 그러나 역내 인플레이션 수준이 목표(2.0%)를 하회한 상태에서 금리인상이 시행된다면 이는 정책적 실패가 될 우려
- ECB 자체적으로도 향후 2년간 인플레이션 수준이 2%를 상회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. 다만 일각에서는 향후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최근의 고물가 상태가 지속된다면 ECB의 금리인상은 적절한 선택이 된다고 주장

■ 미국 모기지 금리 상승, 주택 수요와 공급 모두에 부정적 영향 초래할 가능성 - 블룸버그

(Higher Mortgage Rates Worsen Housing Market Dysfunction)

■ 일본의 임금인상, 부의 재분배 정책과 노동자의 강력한 의지가 요구 - Financial Times

(Inflation bites: what it would take for Japan to get a national pay rise)

■ 주요국 중앙은행, 인플레이션 대응 시 원자재 시장을 주시할 필요 - 블룸버그

(Why central banks are getting inflation so wrong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28, E-mail jsjeong@kcif.or.kr